독 서 와 토 론

페미니즘의 도전

응용통계학과 201452024 박상희 응용통계학과 201952035 조예림 응용통계학과 201952019 이은지 일본학과 201925008 양세연 일본학과 201925028 민지수 일본학과 201925030 최형균

한신대학교

CONTENTS

01

저자 소개

- 저자 소개
- 연구 논문
- 저자 최근 이슈

02

책 소개

- 현황 및 개정판
- 1부 소개
- 2부 소개
- 3부 소개

03

페미니즘

- 페미니즘의 정의
- 페미니즘의 역사
- 한국의 페미니즘
- 세계의 페미니즘

04

최근 이슈

- 남녀 성별 싸움.?
- 페미니즘 대통령

05

소감 및 토론

- 각자의 소감
- 토론
- 질의응답

CONTENTS

01

저자 소개

- 저자 소개
- 연구 논문
- 저자 최근 활동

02

책 소개

- 현황 및 개정판
- 1부 소개
- 2부 소개
- 3부 소개

03

페미니즘

- 페미니즘의 정의
- 페미니즘의 역사
- 한국의 페미니즘
- 세계의 페미니즘

04

최근 이슈

- 남녀 성별 싸움..?
- 페미니즘 대통령

05

소감 및 토론

- 각자의 소감
- 토론
- 질의응답

$01. \text{ ATM } - \text{ ATM } \Omega$



장희진(1976~)

- ▼ 대한민국의 여성학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박사과정
-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여성가쪽부 자문 위원
- **때미니즘의 도전(2005.11),** 비해와 가해의 페미니즘(2018.03) 등의 저자
- **전 현재 다양한 여성조직에서 자문위원, 전문위원으로 활동**

01. 저자 소개 - 억사 학위 논문



'아내폭력' 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 가쪽 내 성역할 규범을 중심으로



1999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한국사회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이 해석되는 방식과 시각을 여성주의 입장에서 문제제기

기존의 "아내폭력" 담론을 여성주의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가해남편과 피해아내 50명에 대한 심층 면접과 문헌 연구를 병행



이 논문을 계기로 한국의 여성문제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됨.

01. 저자 오개 - 최근 저자 이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와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헌재 판결 이후 화제가 된 정희진의 칼럼 (2013년 5월 24일 자 <한겨레>) '혁명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이 저절로 에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운동이 바꾼 에상을 법이 반영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가 이를 인정하고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반을 닮았다는 점에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이번 현재의 결정은 혁명적이라고 일컫는다.

CONTENTS

01

저자 소개

- 저자 소개
- 연구 논문
- 저자 최근 활동

02

책 소개

- 현황 및 개정판
- 1부 소개
- 2부 소개
- 3부 소개

03

페미니즘

- 페미니즘의 정의
- 페미니즘의 역사
- 한국의 페미니즘
- 세계의 페미니즘

04

최근 이슈

- 남녀 성별 싸움..?
- 페미니즘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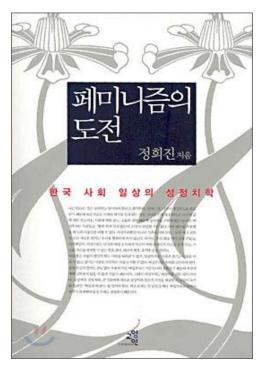
05

소감 및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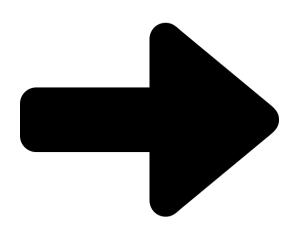
- 각자의 소감
- 토론
- 질의응답

02. 책 소개 - 현황 및 개정판 소개

여성학의 관심이 높아집에 따라 책의 인기가 높아지고, 여러 강의 등에서 여성학 교재로 사용



2005년에 발행된 초판





2013년에 발행된 개정판

02. 책 오개 - 1부 오개

- 1부 -

- **앨** "태초에 목소리가 있었다."
- "어머니는 말할 수 있었을까?"
- **''여성주의, 가장 현실적인 세계관**
- 《사랑과 엑스"



"태초에 목소리가 있었다."

여성운동이 노동운동이나 평화운동과 같은 다른 사회운동과 달리 편경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저항운동이 아닌 협상과 공존의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가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이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식하고 정치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어머니는 말할 수 있을까?"

성별제도로 인한 성 역할은 대칭적이지 않으며 여성은 특정 연령층이 되면 결혼 과 출산여부 와 관계없이 당연히 어머니로 호명되고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결혼했으나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여성은 끊임없는 사회의 비난과 호기심을 견뎌야 하기에 사회는 "여성과 어머니를 분리하고 '성스러운 어머니'의 역할을 남성에게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머니는 말할 수 있을까?"



마리아 미조(1931~)



록일 쾰른대학 사회학과의 교수이자 에코메미니스트

"여성의 가사노동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여성의 노동이 공기처럼 사용 할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 환원되는 현실 을 비판해야 한다."



"여성주의, 가장 현실적인 세계관"

여성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가장 현실적 이여야 할 국가 정책은 현실적 이지 않으며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편경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여성주의는 남성을 미워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이든 중요든 이제까지 남성에게 쏟았던 기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위대한 여성들'에 대 한 기존의 해석은 '역사적 실제'가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서, 현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여성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랑과 엑스"

남성은 성취를, 여성은 관계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도록 사회화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외로움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외로움을 의존성이나 '쿨'하지 못함으로 연결하는 사고방식은 남녀모두 고통 받게 된다. 남성과 여성 둘 다 타인 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감정 노동의 영역에 참가하는 것이 남녀 모두가 사는 상생 의 길이다.

또한 연애가 대중화, 민주화된 지 오래고 성은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렴할 제도는 탄력적이지 못하고, 사회적 고민 과 담론은 너무나 빈약하기에 기존 제도 권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 재구성되 어야 한다.

- 2부 -

- "가정폭력의 정치학"
- ☑ "피해자다움이라는 성 역할"
-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인권"
- "LIOI 듦, 늙음, 그리고 성별"



"가정폭력의 정치학"

이 부분은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며 기존의 정치적 의제 설정 자체가 남성중심적임 을 지적하고, 이 문제가 가정폭력 발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본다.

성별과 계급 문제를 분리, 택일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부장제 속에서의 가정폭력 방지 법은 너무 '앞서가는' 법이라고 말하며 이 문제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폭력의 정치학"

- 12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의 비참한 결말
- 한국사회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가정폭력
- 진정으로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해 우리사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던져 주었던 사건



"피해자다움이라는 성 역할"

현재의 가부장제 사회의 피해자 각본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죽은 듯이 있어야만 피해가 인정되고 피해자로서 '권력'을 부여받는다.

성폭력 II해 인식의 근거를 젠더가 아닌 여성 개인의 몸에서 찾고, 법 담론 중심의 협소한 성폭력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인권"

여성 폭력은 언제나 피해 여성 개인의 고통보다는 그 집단의 명예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렇기에 폭력 피해 여성들도 자신의 피해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쪽이나 직장, 조직, 학교 등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명예를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이 도덕적인 문제 전에 인권 문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이 듦, 늙음, 그리고 성별"

연령주의는 우리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심각한 혹은 결정적인 사회적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나이 듦을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기계적 사고라고 말하고 있다.

나이 등이 생물학적인 것이라는,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평등한 것이라는 개념부터 극복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상상력, 용기, 소망 은 나이에 따라 철저히 제한되어 왔기에 나이 든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다시 바라 보는 것에서부터 반 연령주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부 -

- "성 판매 여성의 입권"
-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 "군사주의와 남성성"
- "글로벌 자본주의**와 남성성, 폭력의** 시장화"



"성 판매 여성의 인권"

사회는 오직 '사항가'라는 직업적 공간에서 평생 전업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성판매자라고 생각하고, 여성주의 진영의 인식 또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성판매 여성이 고정된 경계라는 전제가 문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유형만을 바꾸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성매매가 '강제'인지 '선택'인지 동의하는 것은 성판매 여성을 끊임없이 범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며 여성은 끊임없이 피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학의 문제이지만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들과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성 판매 여성의 갈등과 대립은 이 문제 를 둘러싼 여성과 여성의 '차이'를 질문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성매매 근절의 근거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공적인 문 제로 만드는 가시화의 첫 출발점에 불과하며 성매매 관련 전문가들도 채 수십 명이 되지 않는 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성매매 방지법 이후 성 판매 여성들의 생존권투쟁은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 냈고 여성운동가가 고통 받는 성 판매 여성을 대변할 수 있다는 기존 여성주의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성매매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은 성 노동자 인권 옹호 페미니즘(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반 성매매,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주요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주의는 공통된 본질과 정체성을 지닌 경험적 집단의 투쟁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범주가 종속적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형식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성매매역시 다른 방식의 접근을 모백해볼 수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다.



09:48 알림 'I love lego' 월드투어 전시회…12월 30일까지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1833-4249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 어때애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 주거 명목으로 1인당 2000만원을 지원
- **한성**의견 : 그들에게도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배려를 해야 한다.
- 발대의견 : 대표적인 혈에 낭비이며, 오히려 불법으로 얻어 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에금을 부과해야 한다.



"군사주의와 남성성"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군사주의와 성별 제도가 교직, 상호 생산되는 양상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성별, 성별화된 성 활동이 군사주의 작동의 전제라는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군사주의와 젠더에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고 근대적 남성성의 극복과 평화주의를 다루고 있다.

여성주의 언어를 제외하면, 일상의 차원이든 학문의 영역이든 기존 담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성별은 군사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기제이다.



"군사주의와 남성성"

군사주의는 정차별을 발판으로 한 남성들의 계급을 초월한 남성 연대로만 작동 가능하다. 군 제도에 동원되는 피지배 계급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성찰하여 지배 계급 남성과의 연대 와 동일시 욕망을 극복하고 여성들과 연대할 때, 군사주의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시작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와 남성성, 폭력의 시장화"

이 글에서는 폭력의 시비와 정의를 분석하려는 태도에서 다른 시각으로의 전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남남 폭력과 남녀 폭력에는 인식론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갈등, 후자는 '장난', '희롱', '추근거림' 등으로 인식된다고 말함) 가정폭력 발생 건수, 동성에자 인구 등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현상이나 비 가시화 자체가 작동 원리인 사회 현상은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문제의 원인 또한 찾기 어렵다. 폭력이라는 권력 행동에는 이유가 없으며 단지 그것을 가능게 하는 조건이 있으며 사회운동은 그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파악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01

저자 소개

- 저자 소개
- 연구 논문
- 저자 최근 활동

02

책 소개

- 현황 및 개정판
- 1부 소개
- 2부 소개
- 3부 소개

03

페미니즘

- 페미니즘의 정의
- 페미니즘의 역사
- 한국의 페미니즘
- 세계의 페미니즘

04

최근 이슈

- 남녀 성별 싸움..?
- 페미니즘 대통령

05

소감 및 토론

- 각자의 소감
- 토론
- 질의응답

03. 페미니즘- 정의



페미니즘 (Feminism)





사전적 정의

여성과 남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

역사적으로 남성이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페미니즘 (Feminism)



역사 및 유래

페미니즘의 기원으로는 18세기에 찾아 볼 수 있다. 그 당시 근대 유럽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중시되었고 이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동등한 원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즘 (Feminism)



역사 및 유래

1789년에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터진 프랑스 혁명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어 수많은 시민들에게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였으나 문제는 그 권리 선언의 해당사항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페미니즘 (Feminism)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1759~1797)

"여성에게도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올랭프 드 구주 (1748~1793)



페미니즘 (Feminism)



역사 및 유래

19에기에는 본격적인 페이니즘 운동이 발현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회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적도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페이니즘 운동가들도 남 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 시기에는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샤를 푸리에는 1837년 feminisme라는 단어를 도입하였다.



메미니즘 (Feminism)



19세기 이후부터 페미니즘은 1차, 2차, 3차의 세개의 페미니즘 물결로 나눈다.





1에대 메미니즘 (자유주의 메미니즘)

1차 물결: 1900 ~ 1960 시대

여성들의 언거권, 출산권, 교육권, 노동권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제도 안에서 여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백인 중산층의 이성 애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인종, 계급,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여성들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2에대 메미니즘 (급진주의 메미니즘)

2차 물결: 1960 ~ 1980 시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억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모든 사회질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시하면 서 여러 사회적 불평등 현상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데에 집중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간과한 여성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여성 성소수자들의 경험과 차별을 충 실히 반영했다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3에대 페미니즘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3차 물결: 1990 ~ 현재

2M대 페미니즘이 중산계층 백인 NI스젠더 여성의 NI각을 주로 다루고 있는 한계점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형성에 주목하여 젠더 및 젠더 정체성의 다채로움에 관심을 가졌다.

03. 페미니즘- 한국의 페미니즘



한국의 메미니즘

1920년대부터 등장하였다. 이들 여성주의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기독교 여성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모습



조건 최초의 여성 운동 조직인 근우회

03. 페미니즘- 한국의 페미니즘



한국의 페미니즘

이 중 자유주의 페이니스트들과 사회주의 페이니스트들은 결혼 제도, 정조론을 비판하였는데, 자유주의 페이니스트들이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성적 자유를 주장한 반면 사회주의 페이니스트들은 가정이나 순결에서의 해방을 주장했다.

자유여성주의는 자유주의를 내에우는 페미니즘의 계파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이성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성들이 이성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줄 법률적, 교육적 개혁캠페인을 강조했다.

03. 페미니즘- 한국의 페미니즘



한국 메미니즘의 대표적 인물



나혜석(1896~1948)

- ♥️ 대한민국의 화가이자 ,작가, 여성운동가
- **▼** 한국 최초의 메미니△트로 평가 받음
- 사회가 강요하는 모성에에 대해 강하게 비판
- ▼ 현모양처를 높이 평가하는 유교 성리학적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비판



03. 페미니즘- 세계의 페미니즘



에게이 페미디드

색색의 어깨띠, 강렬한 문구의 플래카드와 대규모 행진 -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지난 시대 페미니스트들의 운동 방식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는 활 동가들이 기발하고 새로운 운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몇 년 전 인도 케랄라 주의 공장 화장실에서 사용한 생리대가 나왔다는 이유로 여직원 45명이 알몸 수액을 당한 일이 생기자, 이 지역 활동가들은 즉시 행동을 취했다. "사랑의 귀스"라는 단체가 해당 기업의 마케팅 책임자에게 생리대(새 것 또는 사용한 것)를 보내는 캠페인을 펼친 것이다. 이 캠페인의 제목은 "적색 경보(Red Alert)"였다.

03. 페미니즘- 세계의 페미니즘



에계속이 페미디를 동울

한편 올해 초 멕시코시티의 여성 단체 "폭력의 딸들"은 길거리 성추행범에게 맞서는 기발한 방법을 건보였다. 길을 가다가 성추행범을 접하면 쫓아가서 색종이 조각 총을 쏘고 스피커를 튼 다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펑크락 장르의 이 주제곡에는 "네가 지금 나한테 한 짓은 성추행이라는 거란다."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



CONTENTS

01

저자 소개

- 저자 소개
- 연구 논문
- 저자 최근 활동

02

책 소개

- 현황 및 개정판
- 1부 소개
- 2부 소개
- 3부 소개

03

페미니즘

- 페미니즘의 정의
- 페미니즘의 역사
- 한국의 페미니즘
- 세계의 페미니즘

04

최근 이슈

- 남녀 성별 싸움..?
- 페미니즘 대통령

05

소감 및 토론

- 각자의 소감
- 토론
-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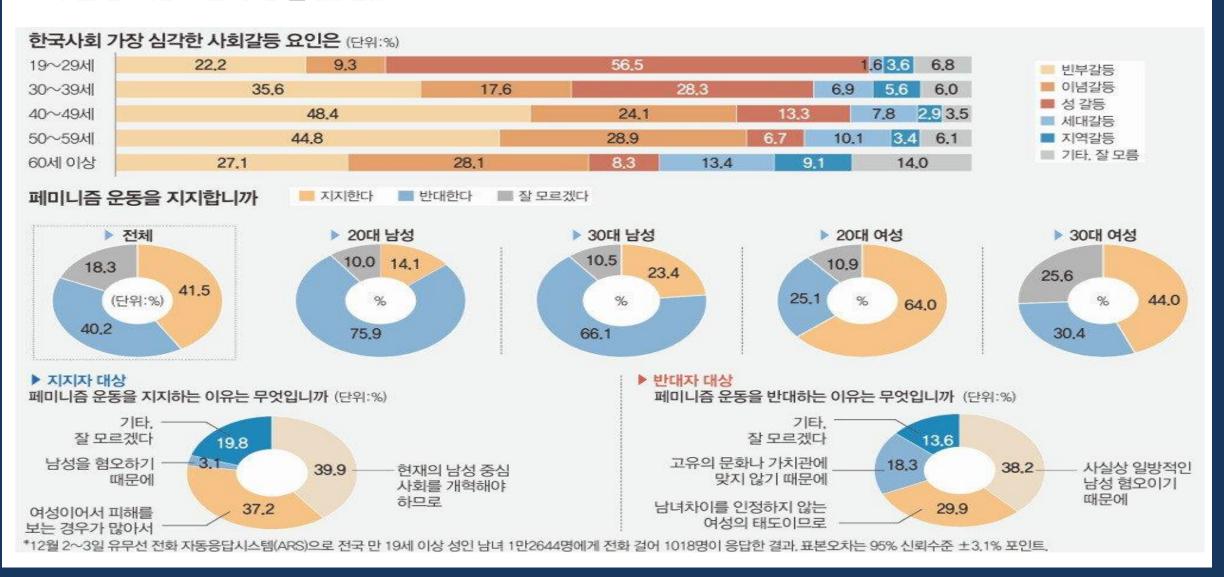
04. 최근 이유- 남녀 정별 싸움..?



변질된 남녀간의 성별 싸움

- **2**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인 반대 성별에 대한 비난과 비판 급증
- 남성의 군대와 여성의 임신 등 비교 불가한 논제 등으로 무의미한 싸움 지속
- 최근 기성에대 vs 젊은 에대 간의 갈등보다 남녀간의 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로 부상

04. 최근 이유- 남녀 정별 싸움..?



04. 최근 이유- 페미니즘 대통령



페미니즘 대통령

최근 아주경제는 거리와 온라인에서 만난 100명의 20대 여성들에게 문제인 대통령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체적으로 투표 당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씩 괜찮은 차선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의 개치프레이즈 '사람이 먼저다'는 20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듯했다.

적폐청산·소통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문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에 관한 대답에서 나왔다.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쪽하기에는 이르다는 평이었다.

04. 최근 이유- 페미니즘 대통령



페미니즘 대통령

그러나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얻었지만, 반대로 20대 남성의 지지는 얻지 못하였다. 한국 갤럽의 통합여론조사 결과 19M-29M 남성의 지지율이 41%인데 반해 19-29M 여성 의 지지율은 63%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직후 17년 6월에는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87%에 달했으나 18년 6월 혜화역 규탄 시위 이후 급 하락 추메로 반전되었다고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는 밝혔다.



CONTENTS

01

저자 소개

- 저자 소개
- 연구 논문
- 저자 최근 활동

02

책 소개

- 현황 및 개정판
- 1부 소개
- 2부 소개
- 3부 소개

03

페미니즘

- 페미니즘의 정의
- 페미니즘의 역사
- 한국의 페미니즘
- 세계의 페미니즘

04

최근 이슈

- 남녀 성별 싸움..?
- 페미니즘 대통령

05

소감 및 토론

- 각자의 소감
- 토론
- 질의응답



응용통계학과 201452024 박상희

"기회의 평등은 추구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추구되어서는 안된다."

나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페미니즘에 대해 자에히 들여다 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페미니즘에 관해, 여성주의에 관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기회의 평등은 추구하되, 결과의 평등은 지양해야한다는 것이다. 내가 회사의 오너라면, 내가 리더라면 남녀평등을 위해 직원을 50:50 뽑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 것일까?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회사에 지원할 기회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해야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위해 능력을 무시한다면 과연 올바른 채용일까? 우리가 나아가야하는 정차별 없는 세상이 기회에서 정차별이 없는 세상인지 결과에서 정차별이 없는 세상인지 고민해 봐야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응용통계학과 201952035 조예림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도 부담스럽고 무섭다.'라는 구절이 입상 깊었습니다. 페미니즘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성평등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여성주의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성주의라고 봐야하지만 사회학사전에는 '가부장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페미니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단어 자체가 부담이 되고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이 왜 여성주의 운동으로 바뀌었는지와 어떻게하면 본래의 페미니즘 운동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현대 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거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응용통계학과 201952019 이은지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는 메갈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모든 페미니스트들을 좋지 않은 인식으로 보고있으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지만, 페미니스트의 도전이라는 책을 읽고 여성주의는 단지 저항운동이 아닌 남성세계관과 경험만을 보편적인 인간의 역사로 만드는 힘을 상대화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남성과 여성의 조화 를 파괴하는 것은 가부장제이지 여성의 직설적인 목소리가 아니다.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회는, 갈등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가능성 없는 사회다. 라는 책 속의 구절을 읽으며 우리는 페미니스트의 변질된 의미를 바로 고치고 남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일본학과 201925008 양에연

페미니즘과 관련된 기사들은 몇 번 접한 적이 있지만 나는 페미니즘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다루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발표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최근 들어 남녀 간의 대립은 점점 더 심해져왔고 이수역 사건과 같은 이와 관련된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다. '성별의 차이'라는 것은 무시하고 혐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공존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을 없앤다며 특정 성별에게만 기회를 더 주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메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일본학과 201925028 민지수

나는 원래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최근 페미니스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다. 원래의 페미니즘이란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남녀간의 갈등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내가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페미니즘도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최대한 완만하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동등한 기회를 받아가며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일본학과 201925030 최형균

페미니즘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간단하게 말하면 양성 평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의 의미가 약간 변절되서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 책에서는 성차별적인 언어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우리 사회에 많은 말들이 남성 중심으로 지어진 성차별적 인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말을 조심히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토론 주제 1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

-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
- 당시 피해자는 지인들과 술을 먹고 있다가 화장실을 간 순간 범행이 일어났다.
- 미리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의자 김모씨(당시 34세)는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방용 식칼로 좌측 흉부를 4차례나 찔러 살해를 한 뒤 도주하였다.



토론 주제 1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

- 같이 술을 먹던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너무 늦게 오자 피해자를 찾기 시작
- 망사 의사하띠 고바압이 민지었습단벌 를状하띠 의의 처단은 사단 마일장선
-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하였기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2008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았고 3월에 가출한 뒤 약을 끊었다.



토론 주제 1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토론 주제 2 - 이수역 폭행 사건 -

- 2018년 11월 13일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남성 5명과 여성 2명의 쌍방폭행사 건이 일어났다.
- 여성 2명은 자신들이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기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 주장
-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이 약 3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여혐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토론 주제 2 - 이수역 폭행 사건 -

- 그러나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고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밝혀짐.
- 여성 2명이 먼저 옆 테이블에 있는 귀플 2명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시비를 걸었다.
- 남성 일행들이 귀플들을 옹호하며 여성 2명과 시비가 붙어 남성 5명과 여성 2명의 쌍 방폭행사건으로 입건되었다.



토론 주제 2 - 이수역 폭행 사건 -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05. 소감 및 토론 - 질의응답



· 한 신 대 학 교

THANK YOU

2 0 1 9 년 5 월 1 4 일